“아닌 건 아닌겨!…사람은 사람다워야죠”

KBS ‘오케이 광자매’서 이철수 역 배우 윤주상
가족 위해 평생 살아온 이 시대 아버지상 보여줘
연극무대서도 맹활약…다시 해보고 싶은 역 ‘리어왕’

윤주상

“아쉬움이 크긴 크죠. 작품이 끝나도 당분간 세트장에 가면 우리 식구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겁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서 주인공 이철수 역을 연기한 배우 윤주상(72)을 27일 여의도 KBS별관에서 만났다. 이날 마지막 세트 촬영을 앞두고 있던 그는 배우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뭐든지 끝날 때는 좀 서운하다”며 옅은 미소를 보였다.

대다수 작품에서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왔던 그는 이번에도 세 딸의 아버지였지만, 극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연기 내공을 쏟아냈다. 그는 철수라는 인물에 대해 “자기 삶을 송두리째 희생하면서 생명을 다한다는 점에서 철수도 그동안 연기해왔던 수많은 아버지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 광자매’ 속 철수는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이 시대 아버지의 표상을 보여줬다. 배우자의 외도, 이 사실을 모르는 딸들과의 잦은 마찰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가정까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삶을, 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파란만장한 굴곡을 겪으면서도 이때까지 버티고 살아온 이 아버지의 힘이 뭐였을까. 작가는 과거를 살아온 아버지를 왜 현 사회에 다시 등장시켰을까. 그게 제 의문점이자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그리고 10개월간의 여정 끝에 선 윤주상은 자신의 질문에 “그 답은 결국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오케이 광자매’의 대표적인 유행어로 자리매김한 철수의 대사, “이건 아니라고 봐!”와 “아닌 건 아닌겨!”도 맥락을 함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반항이에요. 철수가 말하는 ‘아닌 것’의 기준은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이고, 그건 철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인간 중심의 사상일 겁니다. 그러니 결국 철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철수 같은 아버지가 중심이 됐던 구시대는 점점 잊히고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공간의 기둥들, 인간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광자매’를 통해 처음으로 문영남 작가와 만났다는 그는 “문 작가를 만나고 나서 내가 평소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에 눈이 열렸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연기 인생에서 만난 좋은 기회이자 행운”이라고 극찬했다.

또 이번 작품에서 광남, 광식, 광태 세 딸의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했다.

“아들만 둘이라 평소에도 딸이 있었으면 했는데 드라마 속에서나마 딸이 세 명이나 있으니 참 좋아요. 철수가 살아가며 허망함이 밀려올 때마다 이 딸들이 그 부분을 메꿔줬기 때문에 삶을 지탱하고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는 자신을 “형편없는 아버지”라고 평가한 그는 “일만큼은 매우 충실하고 철저하게 해왔지만, 가정이나 주변에는 그러지 못했다. 식구들에게 미안한 게 많다”며 멋쩍게 웃었다.

1970년 극단 세대의 단원으로 연기를 시작한 윤주상은 이듬해 TBC동양방송 공채 성우로 데뷔한 뒤 안방극장에 진출, 연극 무대와 드라마, 영화를 오가며 배우의 삶을 살아왔다. “문학을 동경하고 꿈을 꾸다 보니 배우를 하게 됐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지금까지 해온 작품 중에 다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 맡았던 왕 역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의 표도르 역할이에요.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였거든요.”

윤주상은 최근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박인환이 드라마 ‘나빌레라’를 통해 70대의 꿈이라는 서사를 그려낸 것에 대해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오래도록 연기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밝혔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늘 새로운 작품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는 “이제는 안 해본 역할이 없을 정도”라면서도 “요즘엔 만화 같은 세계로 들어가 사물들의 세계가 그려지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 만약 내가 나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눈을 반짝였다.

/연합뉴스

가수 송가인 코로나 확진
격리시설 이동 필요한 조처

연예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가운데 가수 송가인(사진)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송가인이 28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소속사는 “송가인은 이날 오후 격리 시설로 이동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과 안유진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스태프와 동선이 겹쳤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장원영은 양성, 안유진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장원영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안유진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모가디슈’ 최고 흥행작
올 개봉 영화 중 첫 300만 돌파

영화 ‘모가디슈’(사진)가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처음으로 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29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모가디슈’는 개봉 33일째인 이날 오전 누적 관객 301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모가디슈’는 300만 관객 돌파와 함께 마블의 블록버스터 ‘블랙 위도우’(295만8000여명)를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고립된 남북한 공관원들의 탈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앞서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황정민 주연의 리얼리티 탈출 액션 ‘인질’도 개봉 11일째인 지난 28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임재범 보컬 30년 역사…‘메모리즈’ 리마스터 3CD앨범 발매

가수 임재범(사진)이 21년 전 발매했던 베스트 앨범 수록곡을 포함해 디지털 복원한 명곡들을 리마스터 앨범으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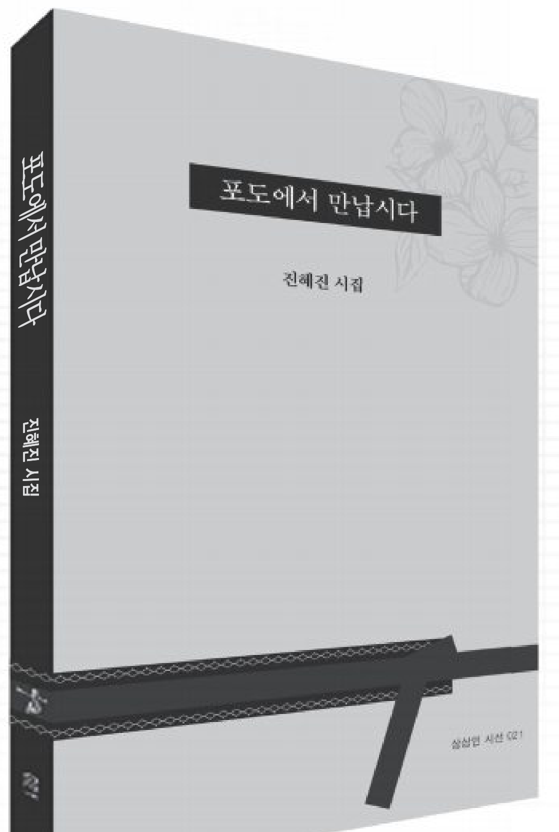
소속사 블루씨드에 따르면 임재범은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한 ‘메모리즈(Memories)…속으로’ 프로젝트 음원을 집대성한 3CD 리마스터 앨범을 27일 출시했다.

임재범 측은 2000년 발매한 베스트 앨범 ‘메모리즈’의 최초 녹음 릴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하고 복원한 것을 포함해 총 30곡을 디지털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메모리즈…속으로’라는 이름으로 파트 1~3에 걸쳐 공개했다. 완전체 앨범의 타이틀곡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다. 온라인 발매 당시 5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또 1980년대 시나위, 백두산, 부활, 작은하늘 등과 함께 국내 최정상급 헤비메탈 밴드였던 외인부대 리드보컬 시절의 ‘어나더 라이프’(Another Life)를 30년 만에 새로운 보컬과 함께 편곡된 버전으로 실었다.

한편 소속사는 임재범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대외적인 활동보다 정규 앨범의 곡 수집 및 아티스트의 건강에 조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넴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